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공동체운영위원회가 오후 3시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 어린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19일(토) 오후 4시에,
멋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19일(토) 오후 6시에 모입니다.
- 다음 주일 공동예배는 각 학교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김진율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7 호

2022년 2월 1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평과 공정에 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평과 공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집단 간에 관행처럼 몰래몰래 되어오던 일들이,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개개인 누구나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아주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본능으로 여겨질 정도로 태생적인 어떤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차별받거나 자신이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모두 화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내면에 심어두신 양심의 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내리는 내면의 의식 혹은 작용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과 공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머리 속에 떠오르는 예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금 열리고 있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에서 어렵게 벌어진 행사입니다. 온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라는 장이 몇몇 사람들을 위한 편파 판정이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1초 차이로 경쟁을 다룬만한 쇼트트랙 시합에서 자국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이번 올림픽은 많은 사람에게 공정과 공평이 사라진 올림픽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자기 실력을 미처 다 발휘하기 전에 탈락한 선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모두가 즐겨야 할 올림픽이라는 축제의 장에서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선교와 섬김

판정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경기 안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불공정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스포츠에서만만큼은 각자가 애써서 향상된 실력을 정당하게 겨루고 그 사람 혹은 팀이 이루어 낸 뛰어난 능력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스포츠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포츠에서 마저 힘이 센 국가가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규정을 바꾸고,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와 같이 승리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여 자국의 선수들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여 기록을 향상시키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이런 행태가 근절되기 전까지는 올림픽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에 집중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이루어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런 잘못을 발생시킵니다.

성경에서는 공의와 공정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전반적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특히 시편에는 공정한 재판과 공평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말은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중에 거하고 있을 지라도,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정하신 성품을 믿어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사리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는데, 이에 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이런 부당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편법과 반칙이 아니라 공정과 공평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애쓰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21장 18~31절

제목 :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86 410 543 218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8~19절 <짧은 경구>

20~23절 <지혜로운 자들이 사는 방식>

24~29절 <악인들이 사는 방식>

30~31절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2. 내용의 의미(Why)

지혜로운 사람은 신의를 좇아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탐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호의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절제와 통제력이 필수적입니다.
- ② 경건과 근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탐심과 게으름은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스스로 욕신의 소욕을 잘 다스립시다.
- ③ 근면한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집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그것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 각자가 부여 받은 선물을 토대로 하나님과 타인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의욕, 즉 우리 내부에서 빛이 더욱 밝아지고 진리와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마음이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체로 이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과 대단한 정화 작업과 새로운 부활을 창출하는 부단한 죽임이 요구된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안위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한다.

사랑방의 길은 희생으로 점철된 길이다. 이기심의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드러내는 자기방어, 탐욕 및 개인의 만족 추구 같은 반응은 흔히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수성 통제와 극복이 망라된 의지적인 행위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일에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향하는 순화된 마음과 감정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오한 자기 정화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파견하시어 이 새로운 에너지, 이 힘, 이 훌륭한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심지어 그가 적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환영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게 해주마고 약속하셨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구석구석까지, 공포감과 장벽과 질시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곳까지 두루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공동체는 이룩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롬15:7)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디모테전서 6 : 14-15 인도자
3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569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디모테후서 4 : 9 - 15 설교자
379 사랑방
“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20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창수 정혜옥 / 봉헌위원 : 이승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 안에 예수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힘을 내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화내고 갈라서는 바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바울과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여행을 출발했다가 일행을 떠나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차 전도여행부터 각자가 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아픔의 기억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연합인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완벽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관계의 어려움과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가를 “요긴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신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힘을 내어 서로를 용납합시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며 내 앞의 일이 힘들어 낙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십니다. 지치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의 존재를 용납합시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삶을 누립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정낙귀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침모임 시간에, 칭찬을 받거나 수호천사가 되면, 앞으로 나와서 의자에 앉은 교사 옆에 섭니다. 그 친구를 보려 교사가 고개를 돌리면 얼굴이 보이지요. 아 그런데 여덟 살이 된 꾸러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어깨만 보이네요. 얼굴을 보려면 교사가 고개를 꺾어 올려야 하네요.

안아달라고 다리를 붙드는 코끼리반 꾸러기 한 명을 안아 올리는데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어? 방학 전에는 두 명을 함께 안아 올려도 괜찮았는데 이제 여섯 살이 된 꾸러기는 한 명도 조심스럽네요. 제 힘이 줄어든 건지 꾸러기가 무거워진 건지...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마당으로 나가놀았어요. 전에는 돌고래반만 발이 지붕에 닿도록 그네를 밀어달라고 했는데 이젠 코끼리반도 그렇게 탈 수 있다며 형과 함께 탑니다.

나물도 고기도 질기다고 음식을 입에 물고 정말 오랫동안 삼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맛이 조금만 강해도 못 먹겠다고 힘들어하던 꾸러기 두 명이 요즘 뭘든 똑딱 잘 먹어요.

고모저수지 둘레길을 걸었어요. 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다리 아파요. 언제까지 걸어요?'해서, 이번에도 주차장까지 못가면 교사가 얼른 걸어가서 차를 가져와야하나 생각하며 걸었는데, 다 걷고 시간이 남아서 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놀기까지 했네요.

어느새 쑥 자란 모습을 확인하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겨울잠을 자고 있는 귀여운 꿈이나 나무들이 깨어날것 같은 봄햇살을 흥내 내는 폭한 날들입니다. 어린이학교도 새봄에 새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
배움과 가르침

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책을 주문하고 드디어 주인공인 신입입생을 만나는 시간이 12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신입생 4명(1명은 다음주에 만나기로 함)과 편입생 1명을 만나보았는데요, 어쩔 그리도 맑고 밝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친구들인지요~ 긴장은 부모님들이 하시고 친구들은 대답도 척척하고 즐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소 짓궂은 질문도 당당하게 받아 넘길줄 아는 재치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기대하듯 교사들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입학식을 하고 다함께 어린이학교를 누리고 싶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오랜, 그리고 추웠던 방학기간 끝에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과목학습에 몰두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은 펍 반갑고, 처음 모였던 날 밤에는 이야기꽃이 밤늦게까지 피었더랍니다. 그 중에 금요일에는 6학년, 곧 졸업을 앞둔 멋쟁이 학생들이 모여 선생님들을 위한 사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다사다난한 과정을 모두 견디고서 자라난 멋쟁이들은 정말로 멋쟁이임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들은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미래를 향한 축복도 곁들여져, 내면이 풍요로움으로 가득차는 한 때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무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부모님들께도 감사합니다. 6년간의 배움은 결코 짧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속에서 성숙함을 더해가는 멋쟁이들의 모습에 교사는 커다란 보람과 의미를 느낍니다. 멋쟁이들 스스로도 성장함을 깨닫고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다 컸네요

토요일 오후 어린이학교 입학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진용이를 어린이학교에 보낼 때는 뭐든 일찍일찍 준비하고 긴장이 됐었는데 둘째 민용이는 마음이 그렇게 바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민용이의 입학 면담도 집에서 놀다가 면담 시간 5분 전에 산책 나가듯 집을 나섰습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가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교장선생님인 이월영 사모님께서 이제 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아이들 다 키우신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민용이를 낳고 집에 오고 얼마 안되서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민용이 엄마~' 라고 불러주셨던 일입니다. 이제껏 진용이 엄마 라는 말만 들었죠? 이제 민용이 엄마도 되는거예요. 앞으로 자주 들을꺼예요. 하면서 불러주신 민용이 엄마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던 기억입니다. 그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옛 생각을 떠올리게 했던 입학 면담을 무사히 마치고 합격의 박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이는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면 항상 엄마 먼저 들어가라고 문을 잡고 서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아이들도 자기와 걸맞은 짐을 하나씩 맡아 들고도 합니다. 어느 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가게 되면 한두시간은 자기들끼리 놀면서 집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안아달라면서 품에 파고 들기도 하고 넓은 자리를 놔두고 구지 엄마 아빠 무릎에 엉덩이를 들이밀기도 하지만요.

유명한 소아정신과박사가 육아의 최종 목표가 자녀를 독립시키는 일이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학교를 다니면서 민용이가 자라게될 모습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막내고 어리광이 많지만 처음 해 보는 공부에 숙제에 그 어려운 도보여행 까지 하다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겠지요. 진용이가 그동안 큰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올해에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움추렸던 몸을 짹 펴고 뛰어 오르듯이 새 봄엔 더 활기찬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에베소서 6장 18-19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디어의 자극적 묘사들]

최근 미디어에선 흥행을 위한 선정적인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부터 담고있는 가치관까지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나누긴 하지만 유소년이 스트리밍서비스나 다양한 광고를 통해 접근하기 쉽습니다. 자극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고 모방범죄 또한 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제작자들과 공급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고 정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라파 공동체]

- 1) 4월 1일은 창립 20주년입니다. 이 시간을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 2) 라파 중독 치유공동체와 사랑과 섬김의 교회, 예수의 단순한 삶 공동체,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며 공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 3) 라파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양계, 양봉, 허브, 꽃감, 농산물유통 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가 공고해지고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학생들과 무림리 어르신들을 위해]

- 1) covid-19의 치명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무림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잘 보내시도록
- 2) 멋쟁이학교가 계절학기로 모였고 꾸러기가 개학을 했습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멋쟁이학교와 꾸러기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공동체 식구들은 다시 활기찬 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베다니 하늘 주방에서 아침 일찍 부터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요리 선생님들까지 학생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애쓴 한 주였습니다.

한파에 얼어버린 정수기도 수리하고, 교육관 오르간도 수리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생활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서로를 더욱 반기고 공동체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곧 꽃이 피리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